

무안, 유기·반려 동물 전담 동물복지팀 신설

유기동물보호소 직영 추진·내년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 계획

무안군이 동물보호 및 복지 실천을 위해 축산과에 동물복지팀을 신설하고 유기동물보호소 직영 관리와 동물복지 관련 사업을 담당하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동물학대나 유기되는 동물 또한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 등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절실한

상황으로 기존 동물보호소에서 동물의 건강 및 영양, 안전 등 동물복지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지난 12월 1일 동물복지 TF팀을 긴급 편성하고 유기동물보호소 직영 관리를 위해 무안읍 용월리에 새로운 임시보호소를 마련해 12월 31일자로 위탁 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개 70마리를 이송했다. 또한 유

기동물보호소의 원활한 운영과 동물들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유기동물 구조, 이송,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현장근무에 임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유기동물 및 학대 신고 등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고 길고양이 증성화 수술, 유기동물 입양,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기동물보호소의 시설현대화와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 전문인력에 의한 보호 관리를 위해 2024년 군특사업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허재경 축산과장은 "사람·동물 모두가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위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과 안전한 보호·입양 등 유기동물보호소 직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태연 기자

신안,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오는 20일까지 취약계층 4000세대 등 방문



신안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11일부터 20일까지 설 명절 특별 위문기간으로 정하고 취약계층 4,000세대와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426개소에 대한 위문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 힘들게 겨울을 보내는 취약계층을 위로하고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저소득층 4000세대에 1억 3500만원,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426개소 53백만원 상당의 각종 위문품을 전달하

고, 시설종사자에게 명절지원금으로 1004점 신안상품권을 360명에게 3600만원을 지원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취약계층이 쓸쓸하고 외로운 명절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쓰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사회복지사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설을 맞아 군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어려운 군민들을 더욱 세심하게 보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박정래 기자

목포, 설 연휴기간 종합상황실 운영

목포시가 설 연휴 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1~24일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총괄 운영을 위한 상황반을 비롯해 교통대책반, 관광대책반, 재난재해대책반, 복지대책반, 보건위생반, 생활민원처리반, 일반민원처리반 등 8개 대책반으로 편성되는 데시는 4일간 약 200여명을 투입해 각종 사건사고 및 긴급 민원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공백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연휴 동안 귀성객의 편안하고 고향 방문을 위해 고속버스 및 열차, 여객선을 증회 운행하고, 대중교통 및 교통다중시설 방역을 강화하며,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유료공영주차장 7개소를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 주요 관광지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건소를 포함한 7개 선별진료소가 휴무없이 운영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중 의료정보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19구급상황관리센터(129보건복지콜센터),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당직의료기관 및 약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목포=김근호 기자

해남 어두운 골목길 '솔라안심등'으로 환해졌어요

해남읍 남부길·남외2길 등 30개소 설치 '안심귀갓길 조성'

해남군 해남읍의 남외마을 골목길이 '솔라안심등'으로 환해졌다.

해남군은 해남읍 남부길 및 남외2길에 솔라안심등 30개소를 설치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솔라안심등'은 낮 동안 태양광을 충전시켜 저녁이 되면 LED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방식으로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제작했다. 비교적 저렴한 설치비용과 별

도의 유지비가 들지 않아 가로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해남읍 해리9길~수성3길, 평남1길~평남3길, 이번 남부길 등에 210여개의 솔라안심등을 설치했다.

해남읍 남외리 김성술 이장은 "구도심 골목은 좁고 어두운데 가로등도 많지 않아 여성과 노인분들이 혼자 지나다니기 위험한 면이 있었다"

며 "솔라안심등 설치로 골목이 밝아 지니 불안감이 사라지져 매우 좋다"며 전했다.

군 관계자는 "솔라안심등 설치로 범죄 예방효과와 체감안전도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향후 추가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찾아 안심귀갓길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영암, 군수직속 상가 활성화 추진단 간담회

영암읍 상가활성화 추진단 상견례·추진방향 논의



영암군은 군 상권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운영 예정인 '상가 활성화 추진단' 구성에 앞서 지난 16일 영암읍에 대한 추진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가활성화 추진단은 영암군수 및 주민대표, 상인대표, 관계 공무원들 위원으로, 영암읍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 및 상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으로 향후 확산과 상호 지역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방향성 검토와 지역맞춤형 사업 제안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 청취와 토론을 통한 실천방안 연구 등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영암읍

중요 도로에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정차를 금지하는 방안 ▲주말 차없는 도로 조성 ▲빈상가 리모델링 지원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거리 정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방안 ▲낙지거리 인근 도로 정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 및 상인대표는 "군청 소재지임에도 그 위상을 잃어가는 영암읍의 침체된 상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상가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힘을 합쳐 추진해 나가야 한다.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군수직속 상가활성화 추진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 사업 수요를 반영한 영암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하려고 한다. 영암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강진,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 최대 월 10만 원, 1년간 지원

강진군은 타 시군에서 강진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강진 품에(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한 뒤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이다. 월세 60만 원 이하의 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해 전세를 계약한 청년가구에 월세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최대 10가구를 선정하며, 신청은 11월까지 수시로 받는다. 전입일 기준 3개월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고 전입 일자 확인 후 구비서류를 갖춰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061-430-3078)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주택소유자(본인 또는 배우자, 동일세대 부모), LH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및 공무원, 공무직, 공공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강진=한홍수 기자

완도,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 지원

완도군은 17일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혼인 신고일 기준 만 49살 이하로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청년 부부다. 부부 중 1명 이상은 초혼이어야 한다.

또 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남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완도군에 주

소를 둔 청년 부부다.

완도군은 올해 총 100부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결혼축하금과 함께 청년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신혼(예비) 부부 건강 검진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맞춤형 청년 정책을 통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명암의 농산물

영암군 YEONGAM-GUN

건강과 웰빙의 대표농산물!

명암우수 농·특산물

청정지역 황토에서 충분한 일조량과 맥반석 물로 재배된 영암농특산물은 친환경농특산물로 품질과 맛이 월등합니다